

1 화

1#주요도시(테라)로 배달을 가는 길 / 오후 1 시

어두운 산 속에서 노엘이 자건거 뒤에 리어카를 달고 달리고 있다. 1-2
그 위에 하늘을 날고 있는 시루 3
올빼미(시루)의 소리를 듣고 노엘이 어둠속에서 방향을 잡고 간다. 4-5

노엘 : 저기 테라(주요 도시- 큰 건물에서 전기 빛을 내뿜고 있음)가 보여!
돌아와도 돼 시루!

노엘이 앞쪽에 전등 빛이 세어나오는 성을 가르키며 말한다.5
시루가 날아와 노엘 머리 위에 앉고 노엘이 속도를 낸다. 6-7

2#테라 성문앞

주요도시 테라의 성 문 앞에 도착한 노엘과 시루
- 안쪽에서 전등이 빛을 밖으로 내뿜고 있고 빛이 없던 외부 지역과 대조를 이룬다. 8

노엘과 자주 대면하는 듯한 경비원과 인사를 나눈다
경비원 : 노엘! 오늘 우편이 많나봐? 9
경비원은 늘상 있는 일인 듯 주머니안에서 소세지 하나를 꺼내 공중으로 날린다. 10

노엘 :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전 마을에서 식량이 떨어져서 주문서가 많아요.
노엘이 뒤쪽 리어카에 담긴 우편물들을 가르킨다. 11

노엘이 고개를 뒤로 돌리는 동시에 시루는 노엘 머리 위에서 날아 올라 소세지를 부리로 캐치 한다. 12

경비원 : 아유..문제가 많구만.. 점심시간인데 노엘 너도 꼭 챙겨먹고 일해!
점심시간인데 어두운 외부지역을 대조시키며 음침한 분위기를 상기시킨다
13-14

노엘 : 아저씨도 든든하게 챙겨드세요! 들어가볼게요! 15

노엘이 성문안으로 들어가고 시루는 성문 위로 날고 시루 밑으로 성문 안쪽 빛이 가득한 도시의 절경을 보여준다. 16-17

그리고 시루가 성문을 넘어 다시 노엘의 머리 위로 돌아온다. 18

노엘 : 드가지잇! 19

시루가 비장한 표정으로 끄덕이고 백덤블링을 하듯이 모자 뒤로 떨어져 뒤편 리어카에 있는 편지 봉투 하나를 물고 앞으로 날아간다. 20 - 23

3#테라 성 안에서

노엘이 테라의 성 안에서 배달 업무를 하고 있다. 24

자전거로 성 안 복도를 다닌다. 편지를 던져 담장에 넘길 때도 있고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갈 때도 있다. 25-26

시루도 가벼운 편지들을 부리에 물고 배달 업무를 돕는다. 27

일을 하는 노엘과 시루 넘어로 테라의 중심부 시내가 보인다. 28

중심부 시내는 지역구만한 크기의 실내건물이다.

굉장히 큰 수목원처럼 실내지만 나무와 풀들이 있고 전등 빛이 밝게 비춘다.

노엘과 시루가 중심부 건물로 들어간다. 29-31

4#테라 중심부 큰 농장주 저택

중심부 시내 안에 몇몇 큰 농장들이 있는데 전등 불빛과 실내 온도 습도를 이용하여 나라 전체의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 32

노엘은 큰 농장의 주인집 저택에 우편 배달 업무를 하고 있다. 33

서류봉투같은 것을 농장주의 딸 카일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노엘 : 여기 받아 34-35

그러던 중 갑자기 배에서 신호가 온다!

꼬르륵! 뽕웅!

노엘 : 카일리. 나 위험해

노엘이 배를 움켜잡고 인상을 쓰며 묻는다 36-37

카일리 : 악! 모야!? 찐거야??

농장주의 딸 카일리가 우편을 받던 중 이상한 냄새를 통해 노엘의 위급 상황을 인지한다. 38

노엘이 터질거 같은 얼굴로 고개를 젖는다. 39

카일리 : 일로 들어와!

노엘 : 시루 여기서 기다려.. 40-41

노엘이 카일리를 따라 엉거주춤하게 팔약근에 힘을 주며 집안으로 들어간다. 카일리가 큰 거실을 지나고 방 몇 개가 있는 복도를 지나서 한참을 들어가서 화장실 앞으로 안내한다. 42-44

카일리 : 여기야!

카일리가 화장실 문을 연다. 45

쉬이이(샤워 물소리) 애덤이 블라인드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다. 46

애덤 : 야! 노크 좀 해 47

카일리 : 오빠 미안!

애덤이 샤워 중이었다.

카일리가 어디를 가야할지 고민한다.

노엘 : 살려줘

노엘이 식은땀을 흘리며 상기된 표정으로 말한다. 48

카일리 : 아! 일로 따라와! 49

5#출입금지건물

둘은 집을 뛰쳐나와 옆 건물로 향했다. 뽀빅 카일리가 옆 건물 문을 연다 50-52

자주 오는 장소가 아닌 듯 카일리는 두리번 두리번 화장실을 찾더니 이내 화장실 앞으로 안내한다

카일리 : 일단 여길 써! 53-54

노엘 : 고마워!

노엘이 뽕하고 급하게 들어간다.

카일리가 조용히 코를 막는다. 55-56

변기쪽 문을 여는데 휴지가 없다.

노엘 : 하악!뿌우웅 57-58

한번 큰 신호가 왔다가 나아진다.

노엘은 빠르게 두리번거리다 화장실 거울 옆 서랍은 연다. 59

그 서랍을 열자 미세한 빛이 뒤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60

(컷과 컷 사이를 길게 슬로우하게 연출)

노엘이 휴지 하나를 잡는다 61

휴지를 꺼내자 뒤쪽에 창문이 드러난다 62

서랍은 창문을 가리지 위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 창문으로 13 년전 사라진 태양의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63

그 태양이 노엘의 얼굴을 비추고 배가 아파 찡그렸던 표정에서 64

황홀하면서 놀라는 표정으로 바뀐다 65

다시 태양을 비춘다. 66

노엘은 다시 신호가 와 배를 움켜잡으며 변기에 앉는다.

노엘 : 와 죽을뻔했네..67

노엘은 나와서 다시 서랍쪽을 의심스럽게 쳐다본다. 68

그 때 밖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린다. 69

농장주 경비 : 아가씨 여긴 무슨일이세요?70

카일리 : 아 노엘 오빠가 화장실이 급해서 열어줬어요~ 71

농장주 경비 : 네? 여기는 외부인은 들어오면.. 72

농장주 경비가 급하게 화장실 문을 급하게 연다 73

노엘이 손을 닦고 있다.

노엘 : 죄송해요.. 너무 급해서.. 74

농장주 경비는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짓고는 화장실 안을 둘러본다. 75

농장주 경비 : 얼른 이곳에서 나가! 76

아가씨도 카드키로 여기 들어오시면 아버님에게 혼나요..

노엘의 모호한 표정을 비춘다. 77

2 화

1 화 마지막 5-6 컷을 리마인드.

그로부터 10 여년전

#tv 뉴스화면

날씨뉴스입니다. 내일 날씨는 구름없이 하루종일 밝겠고최고기온 33 도로 오늘과 온도는 같습니다. 그 다음 날 지진이 났고 건물이 무너졌다.지진은 엄청난 태풍을 몰고 왔다. 한달내내 비가 내렸고 구름인지 먼지인지 모를 것에 가려 어둡뿐이었다. 그 뒤로 태양은 모습을 감췄다. 다시 시간이 흐르고 화장실 일이 있기 1 달 전

1# 노엘의 집안

쓰으썩! 시루가 노엘을 깨운다.

노엘: 하암~ 벌써 아침이야?

미국식 창고같은 집안에서 따듯한 내복과 잠옷을 입은채 노엘이 침낭을 열고 일어난다.

노엘이 큰 나무장착을 바닥에 있는 부싯돌에 부딪혀 한번에 불이 붙인다.

시루가 날아서 우체부 유니폼 모자를 물고 날아와 노엘 머리위로 놓는다.

시루가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노엘 모자 위에 앉는다.

노엘이 집 밖으로 나온다.

2#노엘의 집안

전기가 없는 마을태양이 사라지고 전기는 꼭 필요한 몇몇의 큰 주요도시에만 공급되고 있다.

작은 마을들은 전기가 없이 장작으로 불을 향시 피고 있고 농사를 짓기 못해 주요도시에서 공급을 받고 있다.

노엘이 사는 마을에도 집집마다 장작으로 거리를 비추고 있다.

노엘이 자전거를 타고 움직인다. 시루는 노엘 머리 위에서 졸고 있다.

노엘이 누군가와 인사한다.

노엘 :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백발의 할아버지가 눈에는 안대를 둘러맨 채 집 앞 평상 위에서 바둑을 두고 있다.

촌장할아버지 : 벌써 출근할 시간이나?

노엘 : 네 할아버지

촌장할아버지 : 오늘은 어디로 가는게냐?

노엘 : 테라 서쪽 마을로 가요!

촌장할아버지 : 아이고.. 그동네는 처음아니냐? 위험할텐디...

노엘 : 할아버지 이제 저도 다 컸어요!

촌장할아버지 : 그래도 인식아! 그쪽에선 절대 길 잃어버리면 안된다! 절대

노엘 : 걱정마세요

노엘이 조용히 떠난다.

촌장할아버지 : 돌부리 조심하고!

너무 빨리 달리지 말고!

사냥개들 조심하고!

사람들 조심하고!

돌부리도 조심하고!

왜 대답이 없냐!?

벌써 간게냐??

촌장할아버지가 허공을 보고 잔소리를 쏘아대다 조용해진다.

3#테라 서쪽마을로 가는 길

노엘이 밟는 페달을 클로즈업한다.

빠르게 달리고 있다.

자전거의 유니콘처럼 장작을 달아 눈 앞을 비추고 위로는 시루가 묘기비행을 하며 소리로 길을 안내한다.

노엘이 페달을 멈춘다.

산 아래쪽으로 천막 집들이 보인다.

노엘이 사는 남쪽 마을은 1층짜리 허름한 집들이지만 그래도 아기돼지삼형제의 막내 집처럼 벽돌 콘크릭트로 지어진 집이었지만 서쪽에 있는 마을들은 첫째집처럼 부실하다 두꺼운 군용 천막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었다.

그때!

??? : 침입자다 공격해!

노엘 : !!

누군가 노엘을 공격해온다.

연막가루같은 것을 뿌려 자전거 앞 장작을 꺼트리고 뒤에서 쫓는다.

노엘 : 우체부 정직원을 무시하지 말라고!

노엘이 불이 꺼진 상황에서 전투를 시작한다.

노엘은 겹옷 안쪽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던져 1 화에서 편지같은 것을 던져 배달하던 그 스냅으로 2-3 명을 제압한다 (만화적 허용..)

빛이 없는 상황 때문에 공격한 상대들의 외형을 잘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두운 상황에서 전투가 익숙한 듯 보인다.

인원이 7-8 명은 되어 보였고 멀리서 상대의 지원군으로 보이는 소리가 들려온다.

노엘은 업무를 수행중이기 때문에 자전거에 타 자리를 피하기로 결정한다.
페달을 빠르게 밟기 시작한다. 다급하게 운전을 하는 상체와 핸들을 클로즈업

그 상태에서 상대의 발이 날라와 노엘은 자전거에서 떨어져 날라간다.
어두워 형체가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머리에 두건을 돌려 머리 뒤로 두건 끈 같은게 실루엣으로 보인다. 산적인 것 같다. (장님마을 복선)

노엘에게 걸어온다.

노엘은 공격 준비를 한다.

그때 산적 뒤로 말소리가 들린다.

??? : 이쪽에선 길을 잃지 말라고 했을텐데

그러더니 산적의 목을 쳐 가볍게 기절시킨다.

??? : 짐을 끌고 마을쪽으로 내려가

산적 뒤에서 나온 사람이 손가락으로 방향을 알려주며 노엘을 도와준다.

노엘과 같은 모자와 유니폼을 입은 듯한 실루엣이다.

노엘이 감사인사도 못한채 자전거를 타고 내려간다.

나무 속에 숨어 발을 동동 구르던 시루도 슬픈 표정을 지으며 노엘 자전거 핸들

위에 앉아 노엘의 상태를 살핀다.

노엘 : 내가 이정도로 다치겠어? 아무렇지 않아 하하하하

노엘은 더러워진 모자 아래로 멧쩍은 웃음을 지어보인다.

시루가 핸들쪽에서 날아 모자위로 날라간다. 모자위에 앉으면서 날개짓으로 모자를 털어준다.

4#테라 서쪽 마을 앞

가까이서 본 서쪽 마을은 군용 천막들이 군데군데 모여져 있고 그 주변을 허름한 나무 울타리로 둘러싸고 있다. 그 앞을 위화감 없는 왜소한 경비 2 명이 마을 입구에서 일을 하고 있다.

경비가 말을 건다.

경비 1 : 새로운 우체부?

경비 2 : 여기는 통행료를 내야돼는건 알제?

노엘 : 우체부는 통행료 면제인데요?

노엘이 의아하다며 묻는다.

경비 1 : 아 아직 신입이라 모르는가보군. 이쪽마을은 예외여.

노엘이 가방을 뒤지며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린다.

카이 : 우체부는 테라 소속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텐데?

지금 상황이 보고가 들어가도 되겠지?

우체부 옷을 입고 있는 카이가 산쪽에서 내려오면서 말한다.

노엘 : 선배!

경비 2 : 카이.. 벌써 온거여?

장난 한번 해봤으어.. 우리가 진짜 받으려 했을까봐~

경비들이 씩씩한 표정을 지으며 길을 비켜준다.

노엘 : 선배! 아까 산에서도 선배였어요?

카이 : 내가 그렇게 서쪽에선 길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며
알려줬건만.. 내 잘못이지 뭐.. 그리고 전투도 더 약해진 것 같고 말이야..

카이가 아직 멀었다는 듯이 노엘을 보며 고개를 젓는다.

노엘 : 다 계획된 거지~ 딱 맞고 방심한 틈을 타 속삭 속삭
먼 말인지 알죠~?

노엘이 더킹 동작으로 주먹을 피하는 모션을 하며 우쭐댄다.

카이 : 들어가거나 해!

카이가 자전거에 앉아 있는 노엘 궁뎅이를 때리며 말한다.

5#테리 서쪽 마을 안

카이와 노엘이 서쪽마을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 그 위로 노엘이 자유롭게
곡예비행을 하고 있다. 청록색의 군용천막들이 늘어서 있고 추위에 떨고
배고파하는 아이들이 천막 안쪽으로 보인다.

노엘이 측은하게 마을을 둘러본다.

카이 : 산적을 만났다는 건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야. 제대로 가면 길을..

노엘 : 아유~ 알았어요!

노엘이 말을 끊는다.

카이가 노엘의 머리를 쥐어박는다.

카이 : 이게 대들어!?

노엘이 머리를 감싸쥐며 아파한다.

카이 : 도착했다. 엄살 피지 말고 후딱 하자.

서쪽 마을 임시 우체국 앞에 도착했다. 마찬가지로 천막으로 되어 있고 사무 직원들
2-3 명이 서류가 가득 쌓인 내부에서 일하고 있다.

노엘과 카이가 업무를 시작한다.

노엘이 가지고 온 서쪽 마을에 온 편지와 물품들을 내리고
시루가 가벼운 편지들을 천막 안쪽으로 배달한다. 3-4 컷 소요

카이 : 너는 시루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 겠어ㅋㅋ
시루가 음흉(?)한 표정으로 노엘을 바라본다.

노엘 : 알겠어 알겠어.. 이따 테라 들어가서 사줄게ㅋㅋ
시루가 기쁜 마음에 하늘을 향해 빙글빙글 날아오른다.

노엘 : 선배 오늘은 테라 안 가요?

카이 : ㅇㅇ 오늘은 일 끝났어

노엘 : 또 꿀만 빠시네..

또 머리 한대를 쥐어박으려 한다.

노엘의 습득능력으로 찹싸게 도망간다.

노엘 : 아 전 일이 많아서 먼저 갈게요~~

시루가 날아와 노엘의 머리위로 앉는다.

서쪽마을부터 테라까지는 평지이고 거리가 멀지 않아 테라의 빛이 어렴풋이 보인다.

노엘이 자전거를 타고 뒤쪽으로 손을 흔들며 페달을 밟는다.

